

# 광주FC·전남 드래곤즈 '복수의 주말'

### 2명 퇴장 속 대구에 역전패 악몽 펠리페·엄원상·윌리안 삼각편대 30일 원정경기서 설욕전 벌러

### 전남 "지난 패배 되갚아 주마" 대전 상대 홈경기서 연승 도전

광주FC와 전남드래곤즈가 '복수'의 주말을 맞는다.

K리그1의 광주는 30일 오후 8시 DGB대구은행파크에서 대구FC를 상대로 18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K리그2에서 경쟁하는 전남은 같은 날 오후 6시 광양축구전용경기장에서 대전하나시티즌과 17라운드 대결을 벌인다.

두 팀이 외치는 공통 단어는 '복수'다. 광주는 앞서 대구와의 만남에서 두 명이 퇴장당하는 바람에 2-4, 역전패를 기록했다. 전남도 지난 6월 대전에 0-2로 졌다. 시즌 전 이적 논란으로 양금이 남아있는 팀, 하필 논란의 당사

자인 바이오에게 골을 내주면서 패배의 충격은 컸다.

광주는 상승세를 이어 대구전 악몽을 털어내겠다는 각오다.

안방에서 열렸던 지난 10라운드 대구와의 경기에서 퇴장 약재가 광주의 발목을 잡았다.

전반 15분 만에 측면 수비수 이민기가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그라운드를 떠났고, 펠리페의 선제골에도 후반 시작과 함께 연달아 3실점을 하면서 승기를 내줬다.

후반 39분에는 미드필더 여봉훈까지 퇴장당하는 등 광주에는 있고 싶은 경기가 됐다.

설욕을 위해 펠리페가 공격 전면에 선다. 펠리페는 앞서 대구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패배의 아쉬움을 달래줬었다.

'킥인' 여름이 사후 징계로 이번 경기에도 나서지 못하는 부분은 광주 전력의 마이너스. 하지만 지난 서울전에서 왕성한 활동으로 중원을 빈틈 없이 채워준 임민혁과 두현석이 있다.

측면에서는 윌리안과 엄원상의 움직임이 물이 올랐다.

펠리페를 중심으로 윌리안, 엄원상의 삼각편대가

광주의 5경기 연속 무패를 겨냥한다.

전남도 앞선 경기와는 다른 전력으로 대전을 기다리고 있다.

대전에 2실점을 했지만 전남은 16경기에서 10골 밖에 내주지 않은 두터운 방패를 자랑한다.

창도 환층 매서워졌다. 올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합류한 외국인 선수 에르난데스가 앞서 충남아산과의 원정경기에서 두 번째 골을 기록하는 등 공격이 다각화됐다.

15라운드 승리로 분위기도 뜨겁다. 전남은 지난 아산원정에서 빙속 헬투 끝에 2-0 승리를 거뒀다.

4경기에서 3부 1패에 만족했던 전남은 5경기 만에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며 상승세를 탔다.

이 경기에서 '깜짝 카드'도 등장해 새바람을 불어넣었다. 중앙수비수 광광선이 최전방 공격수로 변신해 상대를 흔들었다.

도움과 특점으로 선제골을 합작한 최효진과 이유현도 베스트 11에 선정되는 등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다. 관심사는 이종호의 컨디션이다. 부상에서 회복한 이종호가 이번 복수전에 나설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의 펠리페(왼쪽)가 대구원정서 설욕전 중심에 선다. 사진은 앞서 대구와의 경기에서 공을 다루고 있는 모습.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함평 레슬링' 명성 이어가는 학다리고

### 전국대회 금 2·은1·동 4 획득

학다리고 레슬링팀이 '함평 레슬링'의 명맥을 잇고 있다.

27일 전남체육회에 따르면 학다리고 레슬링팀이 지난 25일 양정모놀림픽제폐기년 제45회 KBS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를 획득했다.

강경민(2년)은 그레코로만형 60kg급 결승에서 조현성(부산체육)을 9-1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건설(3년)도 그레코로만형 51kg 결승에서 유중식(고척고)을 3-0으로 누르고 정상을 차지했다. 송기엽(3년)은 그레코로만형 87kg 결승에서 윤동현(광주체육)에 패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그레코로만형 51kg 김중영(2년), 그레코로만형 97kg 이승한(1년), 여고부 자유형 51kg 최희진(2년), 자유형 59kg 강경은(1년)은 각각 동메달을 수확했다.

함평은 84LA올림픽 금메달리스트故김원기, 88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영남, 92바르셀로



학다리고 레슬링팀. <전남도체육회 제공>

나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김중신을 배출한 레슬링의 고장이다. 함평군청은 지난해 1월 레슬링팀을 재

창단, 명가재건에 나섰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흑인 피격에 다시 멈춘 미국 프로스포츠

### 남녀농구·프로야구 줄줄이 보이콧 테니스 나오미도 항의...대회 기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시즌을 중단했다 어렵게 재개하거나 뒤늦게 시즌을 시작한 미국 프로스포츠가 경찰의 흑인 남성 총격 사건으로 다시 멈춰 섰다.

최근 위스콘신주에서 경찰이 흑인 남성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에 항의하며 선수들이 연이어 경기를 보이콧하고 있다.

미국프로농구(NBA)는 27일(한국시간) 열릴 예정이던 플레이오프 1라운드 밀워키-올랜드, 휴스턴-오클라호마시티, LA 레이커스-포틀랜드의 경기를 모두 취소했다.

이 조치는 이날 가장 먼저 열릴 예정이었던 밀워키 벅스와 올랜드 매직 전에 밀워키 선수단이 출전

을 거부하면서 비롯됐다. 체육관 라커룸에 머물던 밀워키 선수단은 코트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올랜드 선수들도 몸을 풀다 경기 시작 약 4분을 남기고 코트를 떠났다.

이는 24일 미국 위스콘신주 커노사에서 경찰이 흑인 남성 제이컵 블레이크에 수차례 총격을 한 데 대한 항의 표시다. 블레이크는 당시 비무장 상태로 3세와 5세, 8세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쓰러졌다.

5월 미네소타주에서 백인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이후 전 세계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난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미국 각지에서 거센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28일 대결을 앞둔 토론토 랩터스와 보스턴 셀틱스 선수들도 경기 보이콧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여자프로농구(WNBA)

3경기도 선수들의 보이콧으로 연기됐다. 프로농구에 이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도 3경기가 취소됐다.

위스콘신주를 연고지로 하는 밀워키 브루어스가 가장 먼저 경기 취소를 결정했다.

27일 경기 취소에 동참하지 않은 여러 구단은 28일 경기 취소를 논의 중이다.

미국프로축구(MLS)도 이날 예정된 5경기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

각 구단은 공식 SNS 등을 통해 경기 취소를 안내하며 선수들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여자프로테니스 투어 웨스턴&서던 오픈에서는 4강에 오른 오사카 나오미(19위·일본)가 흑인 피격 사건에 항의하며 기권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 메시, 맨시티행 유력

### 과르디올라 감독과 인연 속 3년 계약 제시...메시 "이미 가족과 결정"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시티(맨시티)가 FC바르셀로나(스페인)에 결별 선언을 한 리오넬 메시(33)의 가장 유력한 행선지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스포츠 매체 ESPN과 아르헨티나 매체 '라 나시오' 등은 27일(한국시간) 맨시티가 메시에 3년 계약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맨시티는 3년 계약 기간을 다 채운 뒤 메시가 원하면 미국프로축구(MLS) 뉴욕 시티에서 2년 더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했다.

맨시티와 뉴욕시티는 멤버른시티(호주), 요코하마 F.마리노스(일본)와 함께 아랍에미리트 왕족 자본 회사인 '시티 풋볼 그룹' 산하에 있다.

맨시티는 은퇴 뒤 시티 풋볼 그룹 엠버서더를 맡기겠다는 제의도 했다. 일종의 '노후보장'인 셈이다. 적지 않은 나이인 메시로서는 구미가 당길 만한 제안이다.

맨시티는 메시가 마음 편히 축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팀이기도 하다.

과거 바르셀로나에서 트레블(3관왕)을 포함, 여러 차례 우승을 합작한 펠 과르디올라 감독이 맨시티 지휘봉을 잡고 있고, 경쟁진에도 바르셀로나 출신 인사들이 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

온 세르히오 아케로도 맨시티에서 뛰고 있다.

ESPN은 "이미 지난주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메시와 만나 맨시티의 새 계획을 설명했고, 이후 메시는 바르셀로나를 떠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라 나시오는 역시 이미 메시의 마음이 맨시티 쪽으로 크게 기울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메시의 측근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이는 메시가 가족과 상의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 한술밥을 먹었던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PSG)에게 맨시티에서 함께 뛰자고 제의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네이마르의 PSG 이적은 메시의 주요 불만 사항 가운데 하나였다.

'ESPN 브라질'은 "메시가 네이마르에게 전화해 자신의 맨시티행을 알렸을 뿐 아니라 함께 새 팀에서 뛰고 싶다고 설득에도 나섰다"고 전했다.

메시는 전날 자신이 20년간 뛰어난 바르셀로나에 이적 요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메시와 바르셀로나의 계약은 2020-2021 시즌까지로 1년 남아있는 가운데, 메시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양측의 견해가 엇갈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 부상 이강인, 팀 훈련 복귀...새 시즌 준비

프리시즌 첫 경기에서 무릎을 다졌던 미드필더 이강인(19·발렌시아)이 팀 훈련에 복귀해 다시 새 시즌 준비에 들어갔다.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의 발렌시아는 26일(이하 현지시간) 구단 홈페이지에 "오늘 오전 팀 훈련에 이강인과 무코타르 디아라키가 참여해 활기를 불어넣었다"며 부상 선수의 복귀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는 "이강인은 팀 동료들과 함께 훈련했으며, 디아라키는 그라운드 밖에서 재활 트레이너와 프리시즌 첫 훈련을 소화했다"고 덧붙였다.

이강인은 22일 치른 2부 리그 카스테욘과 프리

시즌 첫 연습경기에 출전했다가 전반 16분께 오른 무릎 부위에 충격을 받고 쓰러진 뒤 교체돼 우려를 낳았다.

다행히 이틀 뒤 구단은 "이강인이 왼 무릎 염증 진단을 받았다"면서 심각한 부상이 아님을 확인했다.

이강인은 결국 부상 이후 나흘 만에 팀 훈련에 복귀해 새 시즌 준비에 이어갈 수 있게 됐다. 2022년까지 발렌시아와 계약된 이강인은 최근 2025년까지 계약을 연장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렌시아는 28일 비야 레알, 29일 레반테와 차례로 프리시즌 연습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앙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테넷
2관	테넷
3관	오케이 마담
4관	테넷, 빅사크3: 젤리몬스터 대소동
5관	테넷
6관	테넷,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9관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7관 씨네커튼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극장판 핑구는 못말려 강철비2: 정상회담
8관 씨네커튼	나의 소녀시대, 오케이 마담 반교: 디텐션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제3회 GAC그라제 축제  
연극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2020. 9. 2.(수)~3.(목)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제3회 GAC그라제 축제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2020. 9. 2.(수)~3.(목) PM 7:0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제3회 GAC그라제 축제  
**10센치 & 서사뮤얼 콘서트**  
2020. 9. 5.(토) PM 7:0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